

# 출렁다리·붕어섬 개장... 안전점검 만전

### 지난 1일 개장·봄 행락철 관광객 급증 예상... 경찰·소방서 등과 주요시설 등 사고 예방 합동점검 실시

임실군이 육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정식 개장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고 철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3월 1일 육정호 출렁다리 정식 개장과 더불어 봄 행락철을 대비해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27일 임실경찰서와 완산소방서 등과 함께 육정호 출렁다리와 그 일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민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케이블 장치부의 구조적 이상 여부, 난간 등 안전시설의 점검, 전문기관 정기 검사 시행 및 종사자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군은 출렁다리는 관광객 이용이 많은 시설물로 작은 결함에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실군의 대표적인 관광 핫플레이스

로 급부상한 육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은 3월부터 유료화로 전환, 정식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출렁다리를 건너 붕어섬 생태공원을 입장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일반 개인은 3천원, 초·중·고등학생은 1천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임실군민, 미취학 아동, 관내 군부대 군인은 입장료가 무료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된다. 군은 봄철을 맞아 수많은 관광객이 육정호를 찾을 것으로 보고, 출렁다리 안전은 물론 붕어섬 생태공원을 단장하고,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는데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임시개봉 후 12월 19일부터 두 달간 휴장하는 동안 출렁다리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보강공사 및 주변 정비를 마치고 정식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군은 정식 개장과 함께 요산공원, 붕어섬 생태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단계별로 경관꽃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붕어섬 일대 주차장과 먹거리존, 워터, 탐방로 등 제반 시설을 지속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운영시간은 휴장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이다. 심 민 군수는 "지난해 임시 개봉을 했을 때도 큰 인기를 끌었던 육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정식 개장한 만큼 연내 2~3백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출렁다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등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향 임실 발전 위해 사용해 달라”

### 제일·성진여객 김진태 회장, 고향사랑 기부 최고액 500만원 기탁

임실군이 지난 27일 고향사랑기부제 고액 기부금 기탁식을 가졌다. 제일·성진여객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태 회장은 임실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년 기부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탁하면서 7번째 최고액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에는 추석을 맞아 임실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임실사랑상품권 각 1천만원을 기부한 김 회장은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고액 기탁을 통해 다시 한번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회장은 기부한 500만 원에 대한 담례품으로 받은 임실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본인의 고향인 임실군 신평면에 기부하면서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심 민 군수는 “고향을 잊지 않고 매년 임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김진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기부금은 임실군에 기부해 주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임실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김진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은 임실군에 기부해 주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임실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가 지난 27일 오후 6시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 남원시,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첫 시행

### 관내 소상공인 100여명 참석...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경쟁력 함양 지원

남원시가 지난 27일 오후 6시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남원시 소상공인이 다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개최되었으며, 관내 소상공인 100여명이 참석해서 몰입감 있는 교육장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날 교육에서 조문진(메타버스 대표) 강사는 소상공인 경영 노하우 전수와, 친철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경영자의 자세 및 노력의 필요성을 실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시장인관 흥미로운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뒤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남원센터)과 남원시 소상공인 담당 부서장이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관련 상세한 설명 등으로 교육성과를 극대화 했다. 그동안 사에서는 관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형 사업들을 주로 시행해 왔으나, 이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도 병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강상남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몇해전 까지만해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꼈었는데, 이제는 타시군에 앞서 나가는 남원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내 소상공인들이 남원시의 행정에 만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교육 또한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최영일 군수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남원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업과 더불어 경영 컨설팅 등 소상공인 자체 역량강화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104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 독립선언서 낭독·창작 공연 등 독립만세운동 의식 고취

순창군이 독립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1일 순창읍에 위치한 향토회관에서 제104주년 삼일절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신장이 의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과 사회단체장, 보존단체회장, 독립유공자 후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엄중한 분위기 속에 거행했다. 31절 기념식은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100명 이내로 축소되어 진행되었으나 이번 행사는 관내 유공자 후손 및 보존가족, 학생 등 많은 군민의 참여로 행사장인 향토회관을 가득 메워 그날의 합성을 기억하는 자리가 됐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진행된 기념식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창군협의회(회장 윤영식) 회원들이 무대에 올라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데 이어, 기념사, 경축사, 기념공연, 민선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념공연은 일제 강점기의 순창군을 배경으로 한 창작기획 곡인 나빌레라 공연을 선보이며 31절 독립만



순창군이 독립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1일 순창읍에 위치한 향토회관에서 제104주년 삼일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운동을 재조명하고, 우리 민족의 아픔을 들여다봄과 동시에 광복을 맞이하는 희망의 노래를 선사했다. 최영일 군수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1운동의 외침이 그려왔던 것처럼 나라사랑의 뜻을 가슴속에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 국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향해 동행하는 순창인이 되자”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은퇴자라면 누구나... 목공예 배울 수 있는 공동작업 공간으로

### 남원시,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 준공·개관식

지난 28일 남원시에서는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은 2019년 은퇴자 작업공간 1호점 ‘목공도공방’에 이은 두 번째 작업공간으로 총 4억 원(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으로 식정동 부지 내에 대지면적 974㎡, 연면적 199.45㎡(60.3평) 규모로 신축했으며 비영리법인 쓰인 사회적협동조합(대표 변수봉)에서 운영한다. 이날 행사는 이순택 남원시 부시장, 전평기 시의장 및 시의원, 그리고 은퇴노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은 은퇴자 및 취약계층 누구나 목공예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공동작업 공간으로 활용되며, 수납장 등 생활에 필요한 가구 제작 등으로 여가·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작업장에서 추진하는 목공예교과를 통해 자격증 취득에도 도전할 수 있다.



지난 28일 남원시에서는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이순택 남원시 부시장, 전평기 시의장 및 시의원, 그리고 은퇴노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현재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의 목공예 교조교반이 3월 1일까지 교육생을 모집 중으로 3월 10일부터 교육이 시작돼 6월 15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초급반 마무리 후 중급반을 연계 진행 할 계획이다. 이순택 남원부시장은 “조용한 사

회에서 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은 노년기 은퇴자들의 의존과 회복과 여가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다”며 “은퇴자 작업공간을 통하여 은퇴 후 제2의 삶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10일까지 ‘춘향골 아카데미 네이밍 공모전’

남원시가 3월 10일까지 춘향골 아카데미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 춘향골 아카데미는 지난 2004년 시작되어 오는 4월 150회를 맞는 남원의 대표적 시민 아카데미로 2023년 네

이밍 공모전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공모주제는 시민 아카데미의 특색과 남원의 미래성을 표현한 창의적인 명칭으로 아카데미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인 1명칭 공모가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접수(QR접수), 담당자 e-mail(danif25@korea.kr)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순창군, 소상공 대상 특례보증... 1년 거치 4년 상환, 이자 최대 5%

순창군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00만원까지 편리하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군과 협약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군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5천만원을 출연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출연금의 12배인 6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본 사업은 순창군에서 2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또한,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난해보다 1% 추가된 대출이자율의 5%를 군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해야 하며, 대출은 N등급 순창군자부, 전북은행 순창지점, 순창축협, 순창새마을금고, 순창신협, 동계신협 등 6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다만 대출 실행 후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휴·폐업하는 경우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자 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된다. 최영일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대표 농산물 육성 지원 위한 준비 착착

민선 8기 남원시에서는 남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농산물을 지정, 육성·지원해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지역을 대표할 농산물 육성에 나섰다. 남원은 평야부와 중평야부, 산간부가 고르게 구성되어 있는 좋은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딸기와 포도, 사과, 복숭아 등과 같은 다양한 제철 과일과 품질 좋은 한우 등 다양한 농·축산물이 있음에도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에, 남원시는 민선8기를 맞아 농업기술센터 내 원푸드 TF팀을 구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품목 육성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했다. 원푸드 TF팀은 2023년부터 대표품목 육성을 위한 발전방향 및 로드맵 수립, 실증재배연구, 재배농업인 컨설팅, 소비자 맞춤형 가공제품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남원의 농·축산물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남원시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소방서, 봄철 들불 화재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건조한 봄철 논과 밭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740건 피해 면적 2만 4,822ha로 과거 20년간(2002~2021년) 전체 피해면적(22,806ha)을 웃도는 수치이며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논두렁 태우기가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주의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한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 소각해야 한다. 소재실 남원소방서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대형산불 대비를 위해 신중한 화재예방 준비와 소화전·저수지 등 충분한 소방용수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작업 주의

순창소방서(서장 강동업)는 해빙기 및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 등 봄철 특성을 고려해 공사 현장 내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사 현장에는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재료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작업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축공사장 안전 수칙은 △용접 작업 시 주변 가연물 제거 △소화기·간접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 작업 시 화제물사자 지정·배치 등이다. 조만반 방호구조과장은 “건축공사장은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작은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근로자와 관계자는 평소 안전수칙 매뉴얼을 숙지하고 화재감시와 안전 점검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